



## 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

성명		전북대 소속 (학과명)	
해외 파견대학	페루 / 남부과학대학Universidad Científica del Sur	해외파견대학 전공	국제경영학Administración de negocios internacionales
파견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학기 <input type="checkbox"/> 1년		
학기 시작일	2025/08/25	학기 종료일	2025/12/19
출국일	2025/08/23	귀국일	2026/02/04

###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2학기	- 소비자 행동론Comportamiento del Consumidor - 세계화, 통합 및 국제협력Globalización, Integración y Cooperación Internacional - 국제무역법Derecho del Comercio Internaci - 언어와 소통Lengua y Comunicación
	수업방식	대면, 온라인	
	시험방법	대면, 약술 및 서술형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따로 시간/요일 확인이 불가능하다. 1교시는 아침 7시이며, 토요일에도 수업 이 있다. (교통)파업으로 인한 수업 취소가 잦으며,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으 로 진행된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룹 과제가 잦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환학생 대상 인터뷰 영상 촬영	
교내편의시설	독서실, 카페테리아, 야외 벤치 및 테라스		

###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짐 제대로 챙겼는지 확인할 것. 퇴실 절차: 퇴실 사실 구두 전달 납부방법: 현금, 매월 30일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핸드폰 통신사 - ENTEL
기타참고사항	비자 확인 잘 할 것, 성적 처리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것.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p>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p>	<p>출입할 때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얼굴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캠퍼스 내 건물마다 알파벳 동상이 세워져 있어 강의실 위치를 찾기 쉽다. 문화예술 방면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 원한다면 참여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수업은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칠판을 사용한다. 야외에는 책상과 의자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잔디밭도 조성되어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도 적합한 환경이다. 몇 분 더 걸으면 바다도 나온다. 식사는 교내 카페테리아와 Listo를 비롯해 야외 매점과 자판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p>
<p>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p>	<p>8월은 초겨울처럼 쌀쌀하지만 이후 점차 기온이 오르며 건조한 더위가 시작된다. 특히 태양이 매우 강해 모자와 얇은 자켓은 필수이다. 수도 리마 기준으로 비는 거의 내리지 않으며, 내리더라도 미스트처럼 아주 약하게 한두 번 정도에 그친다. 교환학생들끼리 함께 거주하는 숙소가 있으나 월세는 800솔 이상으로 저렴하지 않으며, Villa2 캠퍼스 기준 버스로 40분 이상 소요된다. 학교 인근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아 거주는 추천하지 않는다. 미라플로레스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물가가 높은 편이며, Chorrillos 지역은 방 선택지가 비교적 많아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하다. 식사는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저렴하다. 기타 생활용품과 식료품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나 관광지 주변은 확실히 비싸다. 과일과 대중교통은 저렴하다. 다만 한국 식재료나 한국 용품은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높은 편이다.</p>
<p>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p>	<p>Mifarma, Inkafarma와 같은 약국이 곳곳에 있어 기본적인 의약품은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현금 인출은 Multired ATM(Banco de la Nación)을 주로 이용했다. 도시 기준 Yape를 통해 거의 모든 결제가 가능하지만, 외국 카드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결제 시 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종종 있다. 일반 시내버스, 소형 버스, Metropolitano, 기차,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버스는 현금이나 Yape로 요금을 지불하며, 목적지를 말하면 요금을 안내해 주고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Metropolitano는 전용 차선을 사용해 비교적 빠르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매우 혼잡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기차는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며, 택시는 Uber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신 환경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양호했으나, 외곽 지역이나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p>
<p>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p>	<p>출국 전에 생필품을 대부분 준비해 갔지만, 실제로 생활해 보니 현지에서도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 식품은 가격이 비싸고 종류도 한정적이어서 자주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의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더 나은 편이었으나, 현지에서 구매해야 한다면 Gamarra 시장 방문을 추천한다. 생활하며 느낀 문화차이로는, 우선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며, 화장실은 대부분 건식에, 온수 사용 방식 또한 별도의 온냉수 밸브를 직접 조절해야 했다. 도어락 대신 열쇠를 사용하며, 주방에서 가스를 사용하려면 성냥을 사용해야 했던게 신기했다. 쓰레기도 수거 후 한번에 분리한다기에, 버릴 때 따로 분리하지 않는 점도 특이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보통 1솔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다.</p>
<p>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p>	<p>개강 전 8월에는 OT가 진행되었고, 9월에는 환영회 모임이 있었다. 10월에는 국제 학생이 운영하는 국제학생 부스가 열렸으며, 12월에도 간소한 친목모임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환학생 대상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국제교류부를 통해 온라인 수업 참여 방법, 학교 앱 및 셔틀버스 앱 설치, 수강 신청 및 정정 방법, 비자 발급 관련 정보, 성적 평가 방식(통과 여부, 점수 기준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p>
<p>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p>	<p>비자를 직접 처리해야해서 골치다. 관광비자 3개월이라고 너무 미루지 말고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행정 절차는 매우 느리고,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에만 머무르기보다 현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생필품은 현지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으니 과도하게 챙겨갈 필요는 없지만, 고추장, 라면 스프와 같은 한국 양념이나 소스는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p>